



K-푸드 글로벌화, 청년이 주도한다

김민석 총리, 익산 국식클
청년식품창업센터 방문

청년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열고 지원책 논의
정부·전북도, 지원 약속

청년이 K-푸드의 미래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손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 축으로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지난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7면>

도와 익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기업이 주도하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K-푸드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열렸으며, 청년 식품기업 5곳과 정부 주요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음류소', '다격', '비음도등대' 등으로,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자사 제품과 성장 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제 제품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제품개발과 수출 확대 과정에서 청년 대표들은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하성 메디프레소 대표는 "티백용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테스트 과정이었는데, 센터의 분석지원과 컨설팅 덕분에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정 로컬웍스 대표는 "기후 변화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해 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 블렌딩 꿀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전북도가 조성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지역 국회의원, 청년 식품기업 대표 및 참석자들과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창업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시설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연면적 9,329㎡ 규모를 갖추고 있다. 시제품 제작실, 임대형 공장, 창업교육장, 코워킹 공간, 교육용 기숙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제품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구현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들은 센터의 장비와 전문가 멘토링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품질 인증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주 지원 받고 있다. 특히 수출을 위한 유통환경 시험과 해외 박람회 참가, 공동 홍보관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K-푸드 산업의 미래는 곧 청년의 창의력과 혁신에 달려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도는 식품산업의 성공 모델로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 중심의 식품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식품기업의 성장과 K-푸드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과 함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그동안 쌓아온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K-푸드 도약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식품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가장 성공하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익산이라고 자부한다"며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첨단 식품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 식품기업은 시장을 바꾸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주체"라며 "전북도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기술개발부터 유통·수출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청년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서 8년 만에 수능 만점자 나왔다

전주 한일고 3학년 이하진군... 일반고 재학

전북에서 8년 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왔다. 특히 이 학생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재학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주 한일고 3학년 학생인 이하진 군(사진)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2010년 이후 도내 수능 만점자는 2016학년도 3명, 2018년도 2명에 이어 이번이 6명째다. N수생이 아닌 재학생 수능 만점은 2016학년도에 이어 10년 만이다. 입학 당시 최상위권이 아니었던 이 군은 3년 동안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같은 학습지원을 바탕으로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방과후 교과보충·심화수업 △학생 맞춤형 학습 클리닉 △모의고사 분석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력향상 도전학교'와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군은 "과탐과Ⅱ 과목은 학습 자료나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많지 않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어 탐구 과목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문성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광역교통 중심지… 균형발전 기반”

김윤덕 국토부장관,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참석

제5차 시행계획 반영 위해 전북도 건의 사업 논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했다.



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며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국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

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했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 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 사업 검토)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정음의 맛
쌍화차

찬바람 불면

정음 쌍화차로 건강 챙기세요!